

바이섹슈얼 라이팅(Bisexual Lighting)의 영상 표현 연구

교 이 나

성균관대학교 영상학과 석사과정

목차

1. 서론
 - 1). 연구의 목적
 - 2). 연구의 방법
2. 연구대상으로서의 바이섹슈얼 라이팅
 - 1). 바이섹슈얼 라이팅의 유래
 - 2). 바이섹슈얼 라이팅의 색채 특성
3. 바이섹슈얼 라이팅의 영상 표현
 - 1). 바이섹슈얼 라이팅의 영상 이미지
 - 2). 영상에서의 바이섹슈얼 라이팅 사례 분석
 - (1). 양성애자: 영상의 특이한 표현
 - (2). 유색인종: 다수와 소수의 경계 허물기
 - (3). 가상현실: 상상과 현실의 상호침투
4. 결론

요약문

영상은 이미지를 전제로 하는 문화적 실천이다. 영상이미지를 통해 관객은 일상이 아닌 새로운 것을 체험하기를 갈망한다. 영상이미지의 구성 요소는 많지만 그중에 시각적 표현인 색채가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컬러영화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색채는 영상예술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끊임없이 발전하고 혁신적인 영상미술 디자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영화인들은 1895년 영화가 흑백으로 탄생할 때부터 색채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이 두 가지 색채로 더 이상 시청자를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필름에 색채를 입히는 등 더 많은 색채를 영화 속에서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영상에서의 색채는 표현의 기법이면서도 정신과 사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색채가 단순히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심리에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에 일러주는 것이기도 하다. 색채는 영화 언어의 일부로, 색채언어는 영화 속에서 영화의 사상적 주제를 표현하거나 선명한 캐릭터를 묘사할 수 있으며, 사람들에게 더 직관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색 조명 방식 혹은 배색 방안인 바이섹슈얼 라이팅을 대상으로, 그의 기본적인 색채 구성요소, 즉 핑크색, 파란색 및 보라색이 갖고 있는 색채 특성을 이해해 색채를 통해 인간심리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바이섹슈얼 라이팅이 영상에서 나오는 장면들을 결합해 구체적인 사례분석을 했다. 이를 통해 바이섹슈얼 라이팅이 영상에서 색채 속성을 이용해 표현한 색채 언어가 무엇이고 바이섹슈얼 라이팅이 어떻게 색채를 통해 인간심리와 상호 작용하는지를 탐색하였다.

주제어

바이섹슈얼 라이팅, 인간심리, 영상 표현, 색채 언어, 색채 특성, 포스트모더니즘, 경계 허물기

1. 서론

1). 연구의 목적

영상은 대중매체를 대표하는 콘텐츠로 청각언어와 시각언어 두 가지 방식으로 관객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 소설은 문자로 서사하지만 영상은 이미지와 소리를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다. 시청각 언어를 통해 현상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초기의 영화는 흑백사진의 기술을 차용하여 시작되었다. 하지만 현상계의 컬러를 재연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 초기 흑백영화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연스럽게 컬러감을 확보하기 시작한다. 초기 일부 영화 기술 전문가나 영화 예술가들은 과감한 시도로 무색영화를 유색영화로 만들었다. 1935년 미국 감독 루벤 마물리안(Rouben Mamoulian, 1897-1987)이 만든 최초의 컬러영화 <베키 샤프(Becky Sharp)>의 등장으로 컬러영화의 시대를 알리며 색채가 점점 영화시각효과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후에 첨단기술이 발전하고 전자 기술 수준이 높아지면서 스크린은 객관적인 색채를 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언어로 자리를 잡았다. 영화 속에서 색채가 운용되고 발전하면서 색채는 단순히 진실을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표적인 기호로 바뀌면서 점차 감정화의 상징성을 갖게 됐다.

또한, 영화는 시대를 반영하고, 사람들의 심리적 갈등을 채워주며, 동시에 사람들의 내면세계를 반영함에 있어 이미지, 사운드 그리고 내러티브 등 여러 영화적 언어들을 조합하여 그 표현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상매체의 영상언어, 그 중에서도 색채언어의 역할과 기능에 주목하고 특별히 바이섹슈얼 라이팅의 기능과 발전을 추적하고자 한다. 현 시대는 인터넷과 텔레비전으로 인해 세계가 한마당이 되었고, 인종을 넘어서서 문화를 공유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¹²⁾ 하지만 여전히 색채는 지역, 민족, 나라 등 문화적 특성에 따라 인지적 차이 뿐 아니라 미적 수용에서도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경제와 과학기술의 발

12) 박영수, 『색채의 상징, 색채의 심리』, 파주: 살림출판사, 2003, p.15

전으로 동서양 문화예술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경계의 해체와 상호 융합이 현대문화의 새로운 특징이 되고 있는데, 바이섹슈얼 라이팅은 색채 자체로서의 특수성과 의미 뿐 아니라 여러 부분의 문화적 층위에서 경계 허물기의 수단으로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미디어의 전파 형식의 다양화와 속도의 증가로 인해 이미지가 전달하는 의식적 자극은 영화, TV 등 현대의 가시화 매체에 숨어서 나타나며 단일한 전파 방식에 비해 홍보 역할이 더욱 강력하다. 인지의 범위에 있으면서도 무의식적 인지 혹은 취미의 영역으로 분리되던 심미(审美)의 방식으로 자신도 모르게 대중의 마음속에 주입돼 집단적 무의식이 형성되기 때문이다.¹³⁾ 이러한 측면에서 영상 콘텐츠에 사용된 바이섹슈얼 라이팅의 확장된 기능과 용도, 즉 바이섹슈얼 라이팅을 통해 표현되는 새로운 의미와 경계 허물기의 구체적 사례를 지적해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주로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과 구체적인 사례분석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한다. 다음은 연구내용을 결합한 본 연구의 연구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먼저 2장에는 확정된 연구대상, 즉 바이섹슈얼 라이팅을 조사한다. 인터넷 자료를 수집하여 정의, 기원, 현황 등 기초적인 형성요소를 알아보는 바이섹슈얼 라이팅과 연관된 내용들에 대한 예비적 고찰 내용이다. 바이섹슈얼 라이팅이 색채 요소를 통해 기호적 언어로 메시지 전달한다. 이 때문에 우선 색채의 역할, 영상 속에 색채 이해와 바이섹슈얼 라이팅의 색채 특성을 살펴본다. 이 시대적 배경 흐름 안에서 바이섹슈얼 라이팅이 어떻게 색채를 통해 경계 허물기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키워드를 확보한다. 영화색채, 색채심리학 및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논문과 서적, 선행연구 자료를 정리한다. 이를 구체적인 사례분석의 바

13) 서해나(徐海娜), 『영상 속의 정치적 무의식: 미국 영화 속에 보수주의』, 베이징: 중앙편역출판사, 2011, p.54

탕으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한다.

3장에는 바이섹슈얼 라이팅이 표현된 영상이미지를 모아, 표현영역 별로 분석한다. 사회적 배경이 급속도로 발전한 현대사회, 구조적으로 점점 더 복잡해지고 각 분야별로 변화가 가속화되었다. 전통적으로 존재했던 문화는 경계현상으로 사라져 새로운 문화의 현상이 등장하였다. 사물 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원래 존재했던 대립적이고 절대적인 것을 새로운 시선으로 보라는 주장이 많아졌다. 대중들이 받아드리는 형상을 분석한다. 4장에는 연구의 결론을 내린다.

2. 연구대상으로서의 바이섹슈얼 라이팅

1). 바이섹슈얼 라이팅의 유래

이름만 봐도 바이섹슈얼 라이팅이 바이섹슈얼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바이섹슈얼(bisexual) 즉, 양성애(兩性愛, bisexuality)라는 영어 단어는 19세기에 탄생했고 양성애란 성(性)지향성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성애의 욕망과 동성애의 욕망을 함께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며, 사회적으로 이성과 동성 모두에게 감정적, 성적 끌림 혹은 성적 행위를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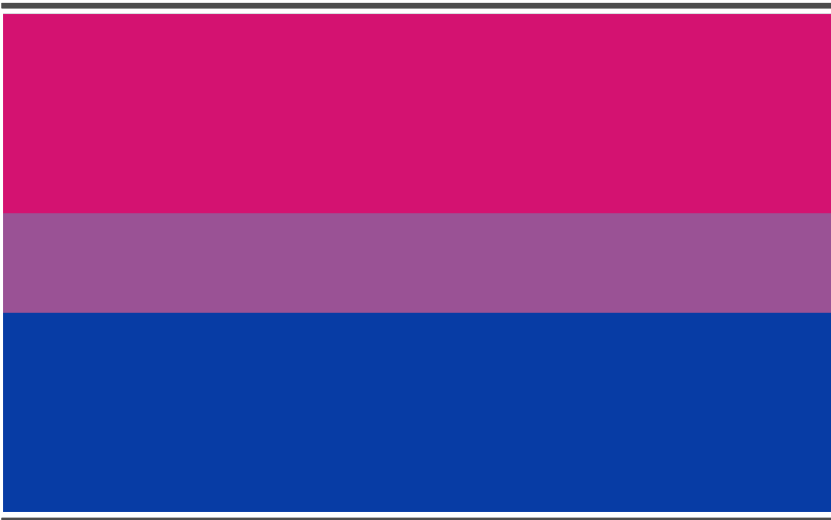
다른 LGBT¹⁴⁾ 정체성과 마찬가지로, 양성애 정체성도 차별을 받았다. 대부분의 차별은 ‘양성애’라는 단어의 적용과 자체성에 대한 검증에 대한 것이었다. 양성애자는 존재하지 않다는 믿음은 드물지 않으며, 두 가지 서로 다른 관점의 산물이다. 이성애중심주의¹⁵⁾적 관점에서는, 사람들은 이성애에게 매력을 느낄 것으로 여겨지며 때로는 이성애(異性愛)만

14) LGBT: 성소수자들을 이르는 말, 레즈비언(lesbian)과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의 앞 글자를 딴 것으로 성적소수자를 의미한다.

15) 이성애중심주의: 이성애적 정상성, 이성애 규범성이라고도 한다. 이성애적 관계를 규범으로 보고 다른 모든 형태의 성 행위를 이 규범에서 벗어난 일탈로 보는 경향을 말하는 용어이다.

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결론까지 낳는다. 단성애중심주의적 관점에서는, 양성에게 완전히 똑같은 성적 매력은 느끼지 않는 한 양성애자가 아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사람은 완전히 동성애자이거나, 완전히 이성애자거나, 이성애자로 보이고 싶은 벽장¹⁶⁾ 동성애자거나,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이성애자다.

양성애자들은 성소수자들에게도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동성애 공동체에 속해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성소수자들이 대중적인 장소에서 커밍아웃 공개를 하는 반면 양성애자들은 음지에 머물러 있다. 이들은 사회에 더욱 공개하려는 노력에서 마이클 페이지(Michael Page)는 양성애를 상징하는 깃발(Bisexual pride flag)을 만들었다. (그림 1)



| 그림 1 | 1998년에 Michael Page가 만든 Bisexual pride flag
(사진 출처: 위키백과)

양성애 상징하는 깃발 또는 양성애 자랑 깃발은 양성애 사회군체의 상용 기호이다. 직사각형의 윗부분에 있는 핑크색 가로 줄무늬는 동성

16) 벽장: 커밍아웃(coming out), 성소수자가 스스로 자신의 성적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주로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라고 밝히는 것을 뜻한다.

사이의 성적 흡인력의 가능성을 의미하며, 밑 부분에 있는 파란색 가로 줄무늬는 이성사이의 성적 흡인력의 가능성을 의미하고, 가운데 좁은 보라색 줄무늬는 양성사이의 성적 흡인력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또한, 마이클 페이지가 이 깃발에 대한 더 깊은 의미를 부여했는데 현실 세계에서 보라색 픽셀의 색상이 눈에 띄지 않게 핑크색과 파란색 둘 다에 섞여 있다는 것처럼 양성애자는 게이와 레즈비언의 직선 공동체 둘 다에 눈에 띄지 않게 섞여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바이섹슈얼 상징하는 깃발을 이해하는 핵심이고 포인트이다.

바이섹슈얼 라이팅의 색은 핑크색, 파란색, 보라색으로 조합된 색채이다. 이러한 배색 방식은 점점 사람들에게 알려져 서서히 추앙되고 있으며 더 많은 장면에서 사용되고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 바이섹슈얼 라이팅을 통해 전달되는 의미도 영상마다 다른데, 그중에 가장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보인 영상이 하나 있다. 미국 <Crazy Ex Girlfriend>라는 드라마에 남자 주인공 Darryl가 ‘Gettin’ Bi’라는 노래를 부르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성적 취향을 용감하게 표현하는 장면이 있다. 노래의 가사(표 1)를 의하면 자기가 양성애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가사와 호응한 무대도 양성애 상징하는 깃발을 배경으로 채우는 장면을 볼 수 있다. (그림 2)

표 1 | ‘Gettin’ bi’(feat. Pete Dinklage) - “Crazy Ex-Girlfriend”에 나오는 가사

“I don't know. I don't know why. But I like ladies. And I like guys.
I realize, it's a surprise! But Now I see that that's just me.
It's not like I even try -- So if you ask me how I'm doing,
Here's is my reply: I'm g-g-gettin' bi. Getting bi.
Oh yeah, I'm letting my bi flag fly. Not gonna hide it. Not
Gonna lie. ”



| 그림 2 | 'Gettin' bi'(feat. Pete Dinklage) - "Crazy Ex-Girlfriend"의 캡처화면

그러면서, 이 배색 방안은 양성애자를 상징하는 깃발 위에 나타나는 색상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이러한 배색 방식은 바이섹슈얼이라고 명명이 된다. 시대적 발전에 따라 사회적 운동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바이섹슈얼 라이팅이 성적 소수 집단의 양성애자를 상징하는 깃발의 연관을 강화시키면 양성애자나 이런 성소수단체에 은유하는 의미로도 성소수단체에 대한 지지와 포용을 호소하는 의미로도 널리 활용하고 있게 시작된다.

2). 바이섹슈얼 라이팅의 색채 특성

바이섹슈얼 라이팅이 핑크색, 파란색, 보라색 삼색이 결합된 색채이며, 그중에 보라색은 핑크색과 파란색의 혼합체이고, 핑크색은 따뜻한 난색 계열이며, 파란색은 차가운 냉색 계열이다. 바이섹슈얼 라이팅은 대표적인 색채를 신호로 널리 사용되며 색채는 시각적 표현예술에서 중요한 요소이자 문자보다도 빠르게 우리에게 다양한 의미를 전달한다.¹⁷⁾

17) 남궁산, 『문명을 담은 팔레트: 인류와 함께한 색 이야기』, 파주: 창비, 2017, p.193

색채에 의해 묘사되고, 그 색채조화에 의해 영상이 이루어지고, 결국 그 영상을 통해서 메시지로 이어진다. 즉, 영상에 나타나는 색채는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여 인간의 심리 현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¹⁸⁾

색채마다 자기의 속성이고, 그 색채가 특정한 장소에 나올 때 사람들의 잠재의식을 불러낼 수가 있다. 삶에 경험의 심리적 체험, 그것이 형성한 시각적 경험에 의한 정형성 때문이다. 시각적인 경험이 영화적 색채 언어와 공감을 불러일으킬 때 관객의 심리에서 어떤 정서를 자극할 수 있다. 핑크색이 어떤 느낌 주는지가 주변 환경에 따라 다르게 보이고, 검정색과 같이 있으면 핑크색은 산뜻하고 아름답게 보이고, 흰색과 같이 있으면 창백하게 보이고, 파랑색과 같이 있으면 차가운 느낌이 주고, 노랑색과 같이 있으면 따뜻해 보인다. 바이섹슈얼 라이팅에 나오는 핑크색은 붉은색보다 덜 강하고, 짙은 핑크색보다 더 가까운 느낌이 나면서 색채의 농후함은 긍정적인 힘을 나타내며, 깊은 인상을 주고, 아름답고 호감을 얻기 쉬운 색이다; 파란색의 물리적 근거는 멀고, 축고, 확장성이 있는 색이다. 파란색은 전형적인 차가운 색조이며, 시각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주는 느낌은 움츠러들고 깊은 공간감을 가지고 있다. 파란색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심신의 회복력을 높여준다; 보라색은 안정성이 매우 떨어져 다른 색의 영향을 받기 쉽다. 보라색의 색조는 파란색과 빨간색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 수많은 명암, 냉난 변화하는 색조를 선택할 수 있어서 물리적으로 모든 혼합된 색채가 애매하고 객관적이지 않게 느낌이 있다. 또한 보라색은 안정된 파란색과 역동적인 빨간색의 두 가지를 결합하기 때문에 파란색의 차분함과 빨간색의 에너지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바이섹슈얼 라이팅은 색채가 비정형적인 특성도 보인다. 색채를 혼용하고 재구성에 의한 비정형적, 비현실적인 색채를 적용하여 허구와 현실의 경계를 허무는 다양한 색채와 표현 기법을 형성한다. 이를 통해 사실적인 사물을 직접적으로 재현하기보다 화면 내부의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색채 이미지가 된다. 일관성 있는 사상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정형화되고 통일된 색채 이미지가 없으며 새롭다고 느껴지는 다

18) 장창우(張常宇), 「한국 심리적 공포영화에 나타난 색채 대비에 관한 연구」, 경산: 영남대학교, 2013, p.27

양한 색채 경향을 보인다.

3. 바이섹슈얼 라이팅의 영상 표현

1). 바이섹슈얼 라이팅의 영상 이미지

| 표 2 | 바이섹슈얼 라이팅의 영상 이미지

작품명	장르	장면	표현 영역
블랙 미러 (Black Mirror)	드라마 (SF/사회)		동성애
아토믹 블론드 (Atomic Blonde)	영화 (스릴러/액션)		양성애
문라이트 (Moonlight)	영화 (드라마/동성)		유색인/ 동성애
블랙 팬서 (Black Panther)	영화 (액션)		가상세계/ 유색인
블레이드 러너2049 (Blade Runner2049)	영화 (SF/액션)		가상세계

아바타 (Avatar)	영화 (SF/모험/액션)		가상세계/ 외계인
-----------------	------------------	---	--------------

2). 영상에서의 바이섹슈얼 라이팅 사례 분석

(1). 양성애자: 영상의 특이한 표현

색채 언어는 하나의 캐릭터에 진실감을 부여할 수 있다. 과학적 관점에서 말한다면 영화 속의 인물, 사물, 풍경 등은 사실 우리 뇌에 반영되는 시각적 기호이다. 사람들이 비슷한 물체를 개괄하고 정제해 많은 상징성을 얻은 ‘기호’는 실물을 연상시키며 이를 구성하는 색채와 이를 인식하는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색채 언어는 캐릭터와 그 스타일링의 안정성과 대표성을 유지한다.¹⁹⁾

바이섹슈얼 라이팅이 양성애를 상징하는 색채로 문화적 동의를 얻게 되자 많은 콘텐츠들이 이런 색채나 라이팅 방식의 사용을 통해 그 주제를 다루었다. 파격적인 앨범 행보를 보여준 자넬 모네(Janelle Monae, 1985-)도 이런 표현방식을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명이다. 그녀가 2018년 봄에 발매한 정규 앨범[Dirty Computer]에서 바이섹슈얼 라이팅을 많이 사용하고 성별과 인종을 자신의 주관 안에서 아우르는 대범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자신 스스로에게 오염된 컴퓨터라 칭한다. 인간을 컴퓨터라 비유하면 컴퓨터를 오염시킨 요소, 인종, 성별, 성지향성, 재산, 사회적 지위 등을 버그, 오류라고 표현한다. 모네는 동성애자, 양성애자 등 성 소수자 단체한테 이 앨범은 너를 위한 거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라고 말한다. 그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 내가 당신을 본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한다는 말을 이 앨범을 통해 전한다. 소수성이라는 큰 카테고리를 이용하지만, 인종, 성지향성, 성별 등 각기 다른 소수자들이 겪는 불편함을 꼬집는 은

19) 자오시시(焦溪溪), 「당대 영상색채 시각심리 연구」, 허난: 허난대학교, 2015, p.26

유로 점철되어 있다. ‘Make Me Feel’은 모네가 발표한 앨범[Dirty Computer]에 수록한 곡이고, 가사도 흔히 말하는 양성애자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며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장면도 거의 70% 바이섹슈얼 라이팅이 나타나 있고 화면 표현도 역시나 양성애 캐릭터가 직관적으로 보인다. 영상 속에서 모네가 남성과 여성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며 어떤 성적 취향을 가진 상대하고도 관계가 가능한 인물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3-그림6)



| 그림 3 | 뮤직비디오 Make Me Feel
의 캡처화면

| 그림 4 | 뮤직비디오 Make Me Feel
의 캡처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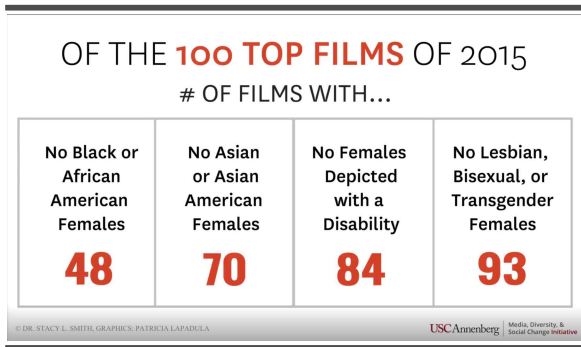
| 그림 5 | 뮤직비디오 Make Me Feel
의 캡처화면

| 그림 6 | 뮤직비디오 Make Me Feel
의 캡처화면

사람들은 반복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정보의 자극을 너무 많이 받고 있고, 인간의 직관적인 시스템은 무의식적으로 간소화되었다. 사람들이 사물을 볼 때 어떤 관습과 특징이 있는데, 노래를 들을 때나 그림을 감상할 때 인간의 잠재의식은 자신에게 유용하거나 재미있는 정보, 인문적인 특징과 사회적 의미를 깊이 각인된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먼저 선택하게 된다. 선명하고 윤기 있는 영상과 캐릭터를 보면, 공감대를 형성하고 원시적 인간성을 파악하며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쉽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바이섹슈얼 라이팅은 이미지 시각 효과를 증진시키는 장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각 매체에서 양성애의 대표적인 부족을 상쇄한다고 이해하기도 한다.

(2). 유색인종: 다수와 소수의 경계 허물기

우리가 영화를 보면 마음껏 즐거워할 수 있고, 영화 스토리텔링으로 다른 곳에 존재할 수도 있다. 영화 이야기는 사회적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면서, 경험적 교훈을 제공하며, 이야기는 우리의 역사를 공유하고 보존해준다. 영화는 대단한지만 영화가 모두에게나 공평하게 그 안에 등장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스테이시 스미스(Stacy Smith)가 할리우드 성차별 이면의 데이터 연설회에서 이렇게 말한다.²⁰⁾ 스미스 연구소가 2015년에 미국 상위 100편 영화에서 대사나 이름이 있는 모든 인물을 살펴보고, 이를 성, 인종, 민족, 성소수자, 장애가 있는 인물로 분류했다. 조사결과와 다음과 같다. 48편의 영화에서 대사를 하는 흑인이나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한 명도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림 7)



| 그림 7 | 스미스 연구소가 2015년 미국 상위 100편 영화에 대한 분석 결과 (사진 출처: TED)

영화는 줄곧 차별이 존재했다. 100년 전 할리우드는 추한 인종차별의 흉터를 남겼다. “흑인에게 권리를 주는 것은 매우 나쁜 결정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온갖 나쁜 짓을 다 저지르기 때문이다.” 그리피스가 연출한 영화 <국가의 탄생(The Birth Of A Nation)>은 1914년 개봉 초기부터 시끄러웠다. 영화 결말은 모든 흑인의 시민권 박탈로 끝났다. 이러

20) TED, “Stacy Smith·TED Women 2016- The data behind hollywood’s sexism”, Accessed March 19, 2021, https://www.ted.com/talks/stacy_smith_the_data_behind_hollywood_s_sexism/up-next

한 명목 장담한 인종주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철저히 격노하게 만들었고, 그들은 대규모 항의 캠페인을 조직했고, 전미유색인종촉진협회도 이번 사건에서 세워졌다. 100년이 지나자, 사람들은 이미 “깃발이 선명한” 인종주의적 관점이 스크린에 있는 것을 보기 어렵게 되었다. 인종주의적 색채가 강한 단어도 퇴출됐다. 그렇다고 인종 차별의 상처가 할리우드에서 완쾌된 것은 아니다. 오늘날 미국의 인종문제는 예전처럼 갈등의 소지가 크지는 않지만 여전히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다. 흑인들은 노래도 잘하고 웃기도 하지만 백인들로 대표되는 주류 문화와 어울리지 않는다. 영화에서 백인 캐릭터는 이성적으로 정직하고, 고결하며, 위급한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반전시킬 수 있다. 흑인 캐릭터는 무모하고, 야만적이며 웃음거리가 되는 경우가 잦다.

영화에는 인종차별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영화 속의 유색인종에게는 늘 문제였다. 오랫동안 필름영화는 백인 주인공을 중심으로 만들었다, 그림처럼(그림 8) 백인 배우들에게 빛을 주는 것은 물론 괜찮지만 흑인 배우들은 많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유색인종 감독들은 그 역사의 변화를 시도해 왔다.



| 그림 8 | 영화 <카사블랑카(Casablanca)>의 캡처화면

촬영사 에이버 버코프스키(Ava Berkofsky)에 대한 음성인터뷰가 하나 있는데, 이는 흑인배우에게 조명에 대한 내용이다. ‘우리의 첫 촬영 날, 스튜디오에 들어갔을 때 한 가지 화면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놀

라게 했다. 짙은 피부색, 두 명의 사람이 어두운 공간에 앉아 있는 화면이었다. 일반적으로 흑인 배우들에게 조명을 주기 위해선 밝은 환경을 보증해 주어야만 했다. 한정된 공간, 어둡고 짙은 감옥에 쳐 박혀 있는 흑인에게 조명을 주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방법으로는 빛을 주기가 어려웠다. 저광 상태의 짙은 피부 톤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할지... 우리는 항상 흑인의 몸에 대해 생각하고 일상의 색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²¹⁾ 흑인 감독들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으며 파란빛이 짙은 피부색에 좀 더 우호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문라이트(Moonlight)> 마지막 장면에 나온 파란색은 포용한 색채로 흑인이자 양성애인 주인공은 어릴 때부터 어른까지 자기 인지의 흔들림을 겪은 후에 그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모습을 보고 작은 몸으로 홀로 해변에서 있고, 푸른 달빛이 그에게 뿌려지면서 주인공이 어머니와 1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첫 사랑과 화해하는 것처럼 바다도 주인공 치유하고 감싸 안는다. (그림9)

미국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Barack Obama, 1961-)가 집권하면서 ‘포스트 인종 시대’의 개념이 제시됐다. 그는 신시대에 흑인의 사회적 지위가 상당히 개선돼 미래에는 피부색의 특질을 강조할 필요 없이 포스트 인종 시대로 접어든다고 말했다.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포스트 인종의 평등 이념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융합 발전과도 맞아떨어진다. 흑인 영화 역시 문화의 글로벌화에 영향을 받아 감독이 흑인 신분에 대한 평등한 이념은 외침이 아니라 각 민족 간의 문화가 결코 우열의 구분이 없다는 모제를 표현한 것이다. 서로 다른 민족으로부터의 문화를 포용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인간으로서 평등하다는 이상을 전하고 실현할 수 있다.

우리가 스크린에 나타나는 다양한 피부색에 진지하게 대응하려면 바이섹슈얼 라이팅이 좋은 해결책이다.(그림 10) 왜냐하면, 바이섹슈얼 라이팅의 물리적인 원리는 음영을 밝게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어두움을 더 밝게 보이게 하고 우리가 어둠 속에 배치되어 있는 사람들을 더 잘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21) Mic, “Keeping ‘Insecure’ lit: HBO cinematographer Ava Berkofsky on properly lighting black faces”, Accessed March 15, 2021, <https://www.mic.com/articles/184244/keeping-insecure-lit-hbo-cinematographer-ava-berkofsky-on-properly-lighting-black-faces>



| 그림 9 | 영화 <문라이트(Moonlight)> | 그림 10 | 뮤직비디오 One I What 의 캡처화면

(3). 가상현실: 상상과 현실의 상호침투

영화로 대표되는 영상예술은 탄생 초기에는 ‘물질 현실 복원’이라는 미학적 경로를 향해 꾸준히 노력했다. 100여 년의 탐색 끝에 어느 정도 영상은 현실과 밀착되고 심지어 현실을 초월해 ‘초현실(hyperreality)’의 세계를 구축했다. 오늘날에도 영상 제작자들은 이러한 ‘초현실’의 시각적 진전에 환호하고 있지만, 이론 연구자들은 충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초현실’ 영상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시각적 효과로 사람들에게 상쾌한 관람 체험을 제시함과 함께 현실에서 벗어나 허황된 세계에 빠져들게 이끌었다. ‘초현실(hyperreality)’은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가 제시한 핵심 이념으로 전자매체가 대중을 위한 가상과 환상 세계를 만들었다는 뜻이다. 여기서 ‘진실’과 ‘비진실’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진실’보다 ‘비진실’이 더 ‘진실’이 되면서 진실이 와해된다.

프랑스의 포스트모더니즘 이론가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는 『시뮬라크르와 시뮬라시옹』이란 책에서 현실세계는 이미 비현실세계가 되었다. 과학기술적 변혁, 정보네트워크, 미디어 콘텐츠 등 전 방위적인 충격에 의해 분출된 정보는 인간의 진위를 가릴 능력을 빼앗기고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VR 가상현실, 증강현실 AR 및 MR 혼합현실 기술의 출현은 가상세계의 진실감각, 몰입감, 상호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우리가 헤드와 각종 센서장비를 착용했을 때 보는 곳은 진실일 뿐만 아니라 허황된 것이기도 한

다. 인터넷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영화계의 유파이기도 한 사이버펑크 영화는 현실과 환상이 교차하는 초현실주의 세계를 관객들에게 보여주었다.

바이섹슈얼 라이팅이 사이버펑크의 대명사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지정한 영상 장르 안에서 항상 같이 나왔다. 사이버펑크(Cyberpunk)는 컨트롤론(Cybernetics)과 펑크(Punk)의 결합어로 정보기술을 주제로 하는 공상 과학 이야기 카테고리 중 하나며 이야기의 배경은 대부분 '저단 생활과 고단 과학 기술의 결합(combination of low-life and high tech)'을 만들어, 통상적으로 선진적인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또 어느 정도 붕괴된 사회 구조와 대조한다. 사이버펑크는 문학에서 대부분 인터넷,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하며 현실과 가상현실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다. 전체적으로 사이버펑크의 스타일은 고도의 과학기술 발전을 반영한 인류문명, 취약한 인간개체와의 강한 괴리, 그리고 외계와 내적, 강철과 육체, 현실과 허상 같은 모순을 다룬다. 이런 기이한 사회는 항상 어두운 색조, 네온사인, 탁한 공기와 장마철, 무감각한 사람들과 무뚝뚝한 얼굴들, 억압적이면서도 아무 곳이나 있는 듯한 고층빌딩 등의 영상 요소로 표현되었다.

〈레디 플레이어 원(Ready Player One)〉은 전형적인 사이버펑크 형식의 영화이다. 이 영화는 이중환각으로 퇴락한 현실 속에서 정신적인 해탈을 위해 가상공간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영화의 배경은 미래에 2045년, 현실세계가 혼란스럽고 엉망진창일 때 암울한 현실과 달리 가상현실 오아시스(OASIS)에서는 누구든 원하는 캐릭터로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고 상상하는 모든 게 가능하다. 사람들은 VR장비만 착용하면, 현실과 극명하게 동떨어진 이 가상세계에 진입할 수 있다. (그림11, 그림12)



| 그림 11 | 영화에서 보인 현실세계

| 그림 12 | 영화에서 만들어진 가상현실세계

이 공간에서, 하이테크놀로지가 만든 포스트 인류 현대 도시의 환경은 심하게 퇴락한 현실 도시의 폐허를 대체하였다. 캐릭터가 각기 다른 플레이어는 서로 다른 차원의 영상 게임 중의 고전적인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모두 모일 수 있다. 비록 현실에서 사회의 변방에 허덕이는 패자일지라도 오아시스에서는 슈퍼히어로가 될 수 있다. 영화 속 주인공인 18세 소년 웨이드 워즈는 어린 시절 양친을 잃은 빈민가에 사는 평범한 사람이며, 현실세계에서의 웨이드 워즈는 수줍어하며 곱돌다. 그러나 ‘오아시스’의 가상공간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즉시 다른 사람으로 바뀌 자신감, 용감함, 슬기로운 캐릭터로 변했다. 게임 속 혹은 환상 공간이 너무 아름답고 사람들이 서로 모르고 실체가 어떤지 아무도 관심이 없다. 환상 속에 존재하는 것은 그 사람이 판단하는 전부 기준이며 환상세계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이 영화에서 바이섹슈얼 라이팅이 많이 나오면서 VR안경을 쓰는 동작과 출현이 맞물려 현실세계에서 가상현실세계로 넘어가는 기호로 관객들에게 알려진다. 디테일하게 영화의 설정된 배경과 결합해 살펴보면 바이섹슈얼 라이팅의 구성 3요소, 즉 파란색, 보라색과 핑크색이 모두 상대적인 색채 암시 역할을 한다. 가상현실세계 중에 파란색은 깊은 공간감을 만들면서 보일 듯 안 보일 듯 나오는 보라색은 가상세계의 은밀함 느낌이 주고, 핑크색 옷 입고 있는 캐릭터는 남자 주인공의 이루어진 사랑이며 같이 게임 속에서 현실세계를 구하는 파트너로 존재하기도 해서 이 핑크색은 로맨스 요소로 볼 수도 있고, 희망으로 보이기도 한다.

4. 결론

바이섹슈얼 라이팅이라는 개념과 명명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초기에는 바이섹슈얼 라이팅이 만들어진 배경과 의미, 메시지의 전달 도구로서의 역할은 양성에 캐릭터에 대한 상징과 표현이 제한되었다.

그러나 시대적 배경 발전에 따라 그 의미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사용 범위가 확장이 되며 표현 의도도 다양해졌다.

본 연구는 포스트모더니즘으로 규정지어지는 이 시대에 바이섹슈얼 라이팅이 색채 요소를 통해 경계 허물기 수단으로써 영상 이미지로 표현된 것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영상 콘텐츠에 사용된 바이섹슈얼 라이팅 장면들을 분석하고, 그 표현 영역을 세 가지로 분류하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바이섹슈얼 라이팅의 색채 특성인 색채 혼용을 통해 표현된 비정형성이 경계 허물기의 특성과 맞아 떨어졌다. 각 색채마다 자기의 물리적 속성이 있고 시대적 배경이 흐르면 그에 따라 속성이 변하는 것처럼 모든 것은 시대적인 산물이고 바이섹슈얼 라이팅도 마찬가지로 시대 발전에 따라 그 시대가 주어진 속성을 받아 자기의 역할을 활용할 뿐이다. 바이섹슈얼 라이팅이 색채 간 특성을 혼용하였고, 전체적인 색채에 왜곡을 강하며 색채를 이용해 포스트모더니즘 영상의 탈정형적 색채 특성을 나타냈다. 특히 기술적 발전에 따라, 컴퓨터그래픽 합성에 의한 바이섹슈얼 라이팅을 만들어 내는 방법은 조명을 뿐만 아니라 색채 특성을 이어 허구적 이미지는 현실의 지시성을 부정하고 비현실적이거나 회화적인 색채 적용을 통해 극대화된 이미지의 물질성이 나타나며 불명확하고 애매한 다차원적 시공간으로 연출된 이미지는 만들기 더 쉬워져 더 활발하게 나타나는 요인 중 하나다. 지금은 바이섹슈얼 라이팅은 영상 이미지를 통해 일상적이지 않은 색채의 재구성에 의해 인위적이고 비현실적인 분위기로 연출된 경계 허물기 작용이 보이지만 미래의 이런 가시화적인 문화 속성 혹은 기호들도 점점 많아지고 다양해질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이른바 ‘탈경계’라는 이름으로 문화 연구의 중심범주가 지리적, 민족 국가적, 경계를 가로지르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어 직접 목격하고 있다. 요컨대 젠더, 섹슈얼리티, 인종, 민족, 계급 등과 같은 기존의 중심범주가 더 이상 균질성과 단일성의 정당성을 부여하기는 어려워지며, 오히려 다양성과 국지성, 개별성 그리고 다름에 기초한 사회문화적 타자들의 전진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바이섹슈얼 라이팅은 양성애 등 소수집단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 대한 존중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고, 보다 폭넓은 의미로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허

무는 역할을 담당했으며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가치체계를 지탱해 온 이항대립의 해체를 가져온 문화적 코드로 읽어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 김선현, 『색채심리학: 몸과 마음이 치유하는 컬러』,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3.
- 남궁산, 『문명을 담은 팔레트: 인류와 함께한 색 이야기』, 파주: 창비, 2017.
- 박영수, 『색채의 상징, 색채의 심리』, 파주: 살림출판사, 2003.
- 서해나(徐海娜), 『영상 속의 정치적 무의식: 미국 영화 속에 보수중의』, 베이징: 중앙편역출판사, 2011.
- 이광원(李广元), 『색채예술학』, 흑룡강: 흑룡강미술출판사, 2000.
- 량민(梁明), 리리(李力), 『영화색채학』, 베이징: 베이징대학출판사, 2008.

논문

- 이선주, 「비습 시에 나타난 경계 허물기」, 광주: 전남대학교, 2018.
- 임현혁, 최윤정, 「현대 광고의 포스트모더니즘 현상과 소구 방법에 따른 기법 연구 - 상업 광고의 시각적 효과를 중심으로」, 서울: 경희대학교부설디자인연구원 논문집, 2005.
- 최원정, 유연숙, 최경실, 「포스트모더니즘 영화의 색채사용 특성에 관한 연구 - 장 피에르 주네 감독의 영화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색채학회, 2014.
- 장창우(張常宇), 「한국 심리적 공포영화에 나타난 색채 대비에 관한 연구」, 경산: 영남대학교, 2013.
- 자오시시(焦溪溪), 「당대 영상색채 시각심리 연구」, 허난: 허난대학교, 2015.

기타

Mic, “Keeping ‘Insecure’ lit: HBO cinematographer Ava Berkofsky on properly lighting black faces”, Accessed March 15, 2021, <https://www.mic.com/articles/184244/keeping-insecure-lit-hbo-cinematographer-ava-berkofsky-on-properly-lighting-black-faces>

TED, “Stacy Smith·TED Women 2016- The data behind hollywood’s sexism”, Accessed March 19, 2021, https://www.ted.com/talks/stacy_smith_the_data_behind_hollywood_s_sexism/up-next

WIKIPEDIA, “Bisexual Lighting”, Accessed March 10, 2021, https://en.wikipedia.org/wiki/Bisexual_lighting

WIKIPEDIA, “Bisexual pride flag”, Accessed March 10, 2021, https://en.wikipedia.org/wiki/Bisexual_pride_flag

YOUTUBE, “Bi Lighting – the Rise of Pink, Purple, and Blue”, Accessed March 8, 2021, <https://www.youtube.com/watch?v=BrdJ1UF25nY>

Abstract

A Study on Image Representation of Bisexual Lighting

QIAO YINA

Dept. of Film, TV & Multimedia, Sungkyunkwan University
Master

Video was a cultural practice based on image. The audience longs to experience new things, not everyday things through by video images. There are many components of the image, but among them, color, a visual representation, plays a big role. Since the advent of color films, color has constantly evolved as an important component of visual art and has become an important role in innovative visual art design. According to film history data, filmmakers were interested in color since the film was created in 1895, but in the early stages of film development, film colors were only black and white. Because these two colors no longer satisfy viewers, more natural colors began to emerge from the film as it was colored. However, with the development of historical paintings, the lack of artistic creation and the public's level increased, making people more active in using colors because simple reproduction of natural colors alone does not satisfy people. The colors in the video are both techniques of expression and can be understood by mind and thought. It is also an indication that colors do not just exist, but they work strongly on human psychology. Now people are so motivated by repetitive

and unimportant information that they find that the human intuitive system simplifies the information they receive unconsciously that they have certain customs and characteristics when they see things. Color is part of the film language, or color language can express the film's ideological themes or portray vivid characters in the film, and people are receiving more intuitive messages. This study analyzed the basic color components of bisexual lighting, namely, pink, blue, and purple, and analyzed how human psychology is affected through color, combining the scenes from the vide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what color language bisexual lighting is expressed using color properties in images and how bisexual lighting interacts with human psychology through color.

Keywords

Bisexual Lighting, Human Psychology, Image Representation, Color Language, Color Characteristics, Postmodernism, Breaking Boundaries
